



유엔아이센터로 오세요!!

화성문화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여성·청소년수련관(유엔아이센터)는 화성시가 문화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설립한 복합문화복지공간으로서 여성비전센터의 문화강좌, 청소년수련관의 교육문화프로그램, 스포츠 프로그램, 화성아트홀의 각종 공연 외에도 다양한 문화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은 '희망이란 그 이름! 당당한 그 이름! 청소년과 함께!' 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을 위한 문화, 교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고의 수련활동 인프라를 구축하여 화성시 청소년들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꿈나무안심학교를 운영하여 지역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언제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생활권 청소년수련관이 될 것입니다.

화성시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어진 문화·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시여성 사회교육기관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화교육, 창업 및 취업을 위한 기술 교육 등의 직업훈련 과정과 삶의 활력소가 되며 새로운 자신을 가꾸는 취미, 교양강좌를 통해 여성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엔아이센터는 화성시민의 활기찬 레저 활동 및 평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최고의 시설과 함께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M 8레인의 최첨단 수영장, 김연아선수 국내전용 연습장인 국제규격의 아이스링크, 그 외에 헬스장, 에어로빅장, 실내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스포츠과학연구소 등을 갖추

어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화성시민을 위한 스포츠 공간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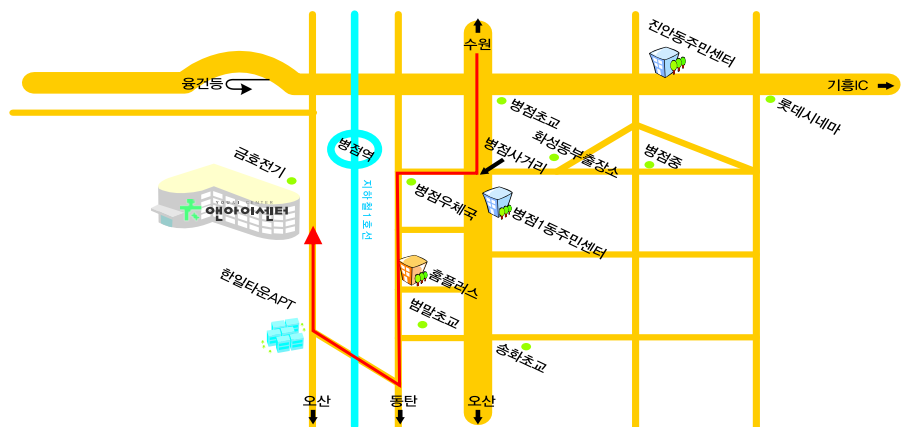
서해안시대 U Creative City 화성, 미래지향적 문화를 선도하는 길이 열리는 공간, 효과 예방의 전통을 계승한 문화 예술 공간, 가정의 행복을 위한 문화 나눔의 공간으로 화성시 문화중심 화성아트홀이 문화예술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편집자 주

신문 소개란

- 1면 - 화성시여성·청소년수련관(유엔아이센터)
- 2면 - 창간축사, 청소년수련관 지도교사 소개
- 3면 - 화성시 청소년 기자단 '그린나래'
- 4면 - YOUTH&NEWS
- 5면 - 2009 정조대왕 효(孝) 리더십 캠프
- 6면 - 드림콘서트 - 꿈을 위한 연주회
- 7면 - 2010년 화성시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안내
운영위원회와 기자단의 WORK SHOP
- 8면 -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소개
- 9면 - 동아리 탐방
- 10면 - 기자단 칼럼 / LIFE WORK
- 11면 - BOOK STORY / MOVIE&CONCERT
- 12면 -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스포츠 프로그램

찾아오시는 길



희망이라는 그 이름, 당당한 그 이름, 청소년!

청소년수련활동의 중심!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인재육성도시 화성시의 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 23일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을 희망이라는 그 이름, 당당한 그 이름, 청소년과 함께 라는 슬로건을 걸고 청소년수련활동의 중심과 허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와 기대로 개관하였습니다.

우리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은 언제나 오늘의 주체인 청소년중심으로 생각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청소년수련시설, 다양하고 특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전문성 있고 열정과 가슴이 따뜻한 지도력을 겸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여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조직인 "청소년기자단 U. F. O"가 청소년들의 소식과 정보를 발굴하고 전달하여 공유하며, 역동적이며 향기로운 청소년문화를 창조하는 「그린나래」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어 큰 기쁨이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그린나래」는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슬로건처럼 희망과 당당함으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소년은 싱그러운 봄이요, 설렘이 있는 시작이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도전인 것입니다.

청소년은 긍정적 정서를 먹고 사는 가능성이요, 자유롭고 무한한 꿈을 꾸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정의로우며, 예의바르고, 강인함으로 당당한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와 화성시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은 이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린나래」를 통해 우리 청소년여러분들이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만들고 나누며, 전달하고 생동감 있게 소통하는 마당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날 청소년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쉽게 포기하는 낙담함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대립 아닌 경쟁으로, 단절 아닌 소통으로, 갈등 아닌 협력의 주체로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길, 그리고 그 어떤 시련과 장애에도 정면으로 맞서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치열함이 있는 신문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도전과 열정, 끼를 마음껏 펼치고 외적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차분히 준비하는 가슴이 따뜻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너그러운 여유로 움에 멋진 화성시청소년여러분과 함께하는 신문으로 나아가기를 응원하며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린나래의 창간을 9만 화성시청소년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화성시청소년여러분! 사랑합니다.

2009. 12.
화성시청소년수련관
관 장 류 명 규

꿈과 열정을 가진 청소년수련관 선생님들

Mireille 원어민 교사
Positive thinking combined with direct action is what is needed to engage the problems of our time.

김희정(비타민) 수련관 의무실장
열정을 가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자!

류명규(백호)청소년수련관 관장
선량한 포부를 이루자!

백수연(해피바이러스) 청소년지도사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

이성태(피터팬) 청소년지도사
즐기는 사람이 되자!

남기운(배추보이) 청소년수련팀
청소년 그거슨 진리!

이진수(차태현) 청소년지도사
어설픈 일등보다는 자랑스러운 꼴찌가 좋다.

이경훈(Kevin) 영어카페
초지일관하면 고진감래 하리라!

이애영(단발머리) 청소년지도사
즐거운 꿈을 찾고, 건강한 꿈을 키우며, 멋진 꿈을 이루세요!

김수연(핑크공주) 청소년지도사
즐길 수 없는 일을 하기엔, 즐길 수 있는 일만 하기엔, 어차피 인생은 짧다!

최경희(소나기)꿈나무 안심학교 교사
천천히 그리고 한발자국씩 너의 속도로 가렴!

오윤희(뽕글이)꿈나무 안심학교 교사
현실에 충실하면 미래가 보인다.

박은숙(에너지이저) 청소년수련팀장
미인대칭비비불(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비난 · 비평 · 불만 하지 말아라!)

이정진(쥘선생님) 꿈나무 안심학교 교사
끝 그것은 곧 새로운 시작이다.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씩을 적어달라는 부탁에 부끄러워하시던 선생님들 막힘없이 적어주시는 모습에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었다.

노진선 기자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그린나래'

그냥 평범한 저희들이지만
린(인)제 여기서 이야기들을 펼쳐 보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모두들
래(애)착을 가지고 만들어 나갑니다.

2000년 제 1기 화성시청소년기자단 (U.F.O : You are Fellow's Outlet)으로 시작한 기자단이 어느덧 9기를 끝으로 2009년 유엔아이센터로 이전하면서 '그린나래'로 새롭게 시작했다.

'그린나래'는 그린 뜻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로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생각들을 펼쳐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은 화성지역 행사를 취재하고, 기사화하여 청소년신문을 발간하는 일을 한다.

취재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그린나래 신문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화성시를 알리고, 화성시 소식을 알려준다.

청소년들을 위한 신문으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청소년의 문화를 창조한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은 기사작성법, 취재기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7월 21-22일 교육의 일모로 워크숍을 갔다. 워크숍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알릴만한 기사를 쓰기 위해

기사 취재방법부터 기사 작성방법, 기사 편집방법 등을 배웠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은 청소년들을 위해 보다 더 나은 신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화성시청소년신문은 다른 아닌 청소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신문이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신문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나 앞으로 끝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기를 바란다.

황다솜별 기자

황다솜별 16세 안화중학교

좌우명 : 인간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뭐든지 취재정신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겠습니다.

성다진 15세 향남중학교

좌우명 :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해보자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진 15세 가산중학교

좌우명 : 결정은 신중히, 행동은 확실히

뭐든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은 14세 푸른중학교

좌우명 : 나를 제일 사랑하자

부지런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신지영 15세 기안중학교

좌우명 :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좋은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14세 솔빛중학교

좌우명 :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훌륭한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김지훈 16세 남양중학교

좌우명 : 처음을 끝과 같이

고등학교에 가면 기자단에 자주는 참석 못하겠지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효정 17세 남양고등학교

좌우명 : 최선의 노력

취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 발전하겠습니다.

이건희 18세 비봉고등학교

좌우명 : 모든 것에 진심으로 마주치자

내리는 글에 항상 진실을 담겠습니다.

한우리 18세 비봉고등학교

좌우명 :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취재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신동현 15세 반송중학교

좌우명 : 늘 밝게 살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진선 17세 남양고등학교

좌우명 : 하면 된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지현 17세 병점고등학교

좌우명 :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모두 다같이 행복 공감!

장애인청소년과 함께 한 문화탐방



지난 8월 18일~19일 21일~22일 화성시가 주최하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청소년 문화탐방 '행복 공감' 이 2회에 걸쳐 한울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다. 이번캠프에는 화성시의 장애청소년과 자원봉사자가 각각 40명씩 참여하였다.

출발 당일 아침 갯벌체험으로 캠프가 시작되었다. 장애청소년 아이들은 갯벌에 손을 담가보고, 게를 잡아보며 즐거워하였다. 다른 문화 체험으로는 천연염색, 천연

비누 만들기, 지우개 만들기가 있었다. 또한 도미노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은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와 장애청소년이 한 팀이 되어 '선생님과 함께하는 미니올림픽' 에서 아이들은 선생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저녁식사 후에 '별자리 시뮬레이션 여행' 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평소에도 궁금했던 별자리를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행복 공감' 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캠프파이어였다. 아이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저마다 소원을 빌었다.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였고,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첨가한 춤을 추며 재능을 뽐내기도 하였다, 선생님과 아이가 짝지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다음날 22일, 선생님들의 보조아래 아이들은 승마체험을 하였다. 말에 올라타자 무섭다며 긴장한 아이들이 어느새 더 타고 싶다며 조르기도 하였다. 승마체험과 함께 말 먹이주기, 마차타기, 말 쓰다듬어 주기 등의 체험을 하였다.

승마체험이 끝나고 마지막 코스로 제암리에 갔다. 아이들은 3.1운동 순국기념관을 방문하면서 호국의 마음과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로 이를 동안 교사의 역할에 충실했던 민기연 (23) 자원봉사자는 가장 힘들었던 점에서 "친해지려고 말을 걸어도 아이가 대답하지 않았을 때 가장 힘들었다." 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말도 잘 하지 않고, 손도 잡지 않던 아이가 어느새 마음을 열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가장 뿌듯했다" 고 말했다.

한우리 기자

재미 가득! 행복 만땅! 경험하기 쑥쑥!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던 청소년 문화체험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형성과 즐거운 쉼터의 역할을 하기위해 화성시가 주관하고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이 주최한 2009 청소년문화체험이 일 년 동안 1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2009년 4월 25일 화성시 관내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이천 자채 방아마을 딸기체험을 시작으로 5월 22일 서신초등학교 뮤지컬 '점프' 공연관람 및 청계천 체험, 5월 23일 도이초등학교 천연비누 만들기과 곤충박물관 견학, 6월 10일 수영초등학교 국립수목원 견학, 6월 20일 울목 초등학교 석박물관 견학과 천연 양초 만들기 체험, 7월 3일 장영초등학교 장일분교 도자기 만들기 체험, 7월 11일 비봉중학교 뮤지컬 '점프' 관람, 7월 25일 관내 초등학교 연극 '완득이' 공연관람 및 스케이트 체험, 8월 14일 관내 초등학교 놀이공원 체험, 8월 25일 한울초등학교 뮤지컬 '난타' 공연관람, 8월 29일 관내 초등학교 뮤지컬 '백설 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공연관람 및 스케이트 체험, 10월

11일 관내 청소년가족 타조 사파리 체험, 10월 24일 관내중학생 허브농원견학 및 허브비누 만들기 체험, 10월 28일 관내 초등학교 카이스트 견학 및 원자력발전소 견학, 11월 14일 관내초등학교 슬로몬로파크에서 모의법정 및 국립과학관 견학이 이루어졌다.

이번 문화체험으로 화성시에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의 장을 제공하였다.

앞으로 화성시에 더 많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고효정 기자

통일 · 안보 문화체험



청소년 안보의식 고취 및 통일에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2009년 통일 · 안보 문화체험이 진행되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체험활동은 화성시 소재 기안초등학교, 수기초등학교, 동학초등학교, 고정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육군 25사단의 협조하에 실시되었다. 군인들이 생활하는 내무반과 군인들이 착용하는 복장 및 군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 등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군인들이 직접해주는 점심식사까지 병영체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태풍전망대 견학을 통해 북한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체험도 있었으며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모습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이번 통일·안보 문화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국가의 현실을 이해하고 통일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건희 기자

화성시

“2009 정조대왕 효(孝) 리더십 캠프”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캠프예요!!!



최근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2009 지역특화 명품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화성문화재단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의 「정조 대왕 효 리더십 캠프」가 지난 7. 8월(1차 2009년 7월 27일(월) ~ 29(수), 2차 7월 29일(수) ~ 31(금), 3차 8월 3일(월) ~ 5(수)) 총 3회에 걸쳐 성황리에 마쳤다.

“정조 대왕 효(孝)리더십 캠프”는 정조대왕의 지고 지순한 효심이 서려있는 ‘효(孝)’의 본 고장인 화성시를 대표하는 청소년 지역특화 명품 프로그램으로써, 관내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이상) 자녀를 둔 가족(회차별 80명) 240여명을 대상으로 베르아델 승마클럽(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 남동)에서 정조 대왕 리더십 배우기, 정조 대왕 효 따라잡기, 효연지기 체험학습, 정조 대왕 효 상황극, 가족사랑

효 콘테스트, 가족 비전 만들기, 용건릉 답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2박 3일간 전액 무료로 진행되었다.

류명규 관장은 “「정조 대왕 효 리더십 캠프」는 청소년들에게 정조대왕의 효심을 배우고, 올바른 효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조 대왕 효(孝)리더십 캠프”가 많은 화성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화성시를 대표하는 청소년 지역특화 명품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이혁제 기자

청소년 문화? 우리들의 놀이터!



지난 11월 1일 화성시 청소년 문화존이 구봉산 근린공원에서 열렸다. 청소년들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문화존은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했다.

참여zone 순서에서 청소년들은 에어바운스에 참여하고, 솜사탕을 먹으며 공연을 기다렸다. 청소년 공연을 시작으로 아이들은 비보이들의 현란한 몸짓, 댄스동아리의 멋진 댄스를 보고, 모두가 즐기는 랩과 우리고유의 소리인 가야금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 초청공연으로는 실력파 댄스동아리 a-con의 무대와 흥미진진한 마술쇼가 있었다.

이번 문화존 행사가 앞으로도 화성시 청소년의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

한우리 기자

“현대차와 함께하는 희망엔진여행”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다.

한번 교육 끝나면 모든 게 끝? “꿈여울 청소년 리더십”은 달라!!!



화성시청소년수련관과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지역아동센터아이를 초청해 ‘현대차와 함께하는 희망엔진여행’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남양연구소 노사합동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화성시내 18개 지역아동센터에서 630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하루동안 세계로 도약하는 남양연구소 견학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참가 어린이들은 실차 충돌테스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 주행시험장에 차를 타고 올라 스피드를 체험하기도 했다. 견학을 마친 후에는 화성시청소년수련관으로 장소를 옮겨 스케이트를 타면서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행사장에서 만난 최은지(남양초 5학년)양은 “우리 지역에 이런 큰회사가 있는지 미처 몰랐다.”면서, “나중에 크면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성다진 기자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꿈여울 청소년 리더십 학교”를 2009년 2월 꿈여울 리더십 1기를 시작으로 7기까지 약 200여명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총 7회 진행되었다. 꿈여울 청소년 리더십 학교는 나의 드림네임 및 나의 소개북 만들기, 협동심 창의적 로켓만들기, 꿈의 보물지도 및 나의 비전만들기, 리더선언식 등 이론교육이 아닌 체험활동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특히 가장 큰 특징은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 피드백교육을 통해 사후관리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연말을 맞이하여 2009년을 의미있게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기위해 꿈여울 리더십을 수료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12월 26일 『꿈여울 연말 피드백 교육』을 마련하였다.

2009 꿈여울 리더십을 수료한 1~7기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각 자 리더선언식 때 선언한 자신의 꿈을 되새기며, 반성하고, 2010년의 꿈을 다시 한번 계획해보는 자리로서, “미래일기대회”와 “진로탐색검사”의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2010년에도 화성시의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지원해주는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의 “꿈여울 청소년 리더십 학교”를 기대해본다.

이재윤 기자

Dream Concert

꿈을 위한 연주회



2009년 4월 18일,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을 첫 번째 손님으로 시작한 강지원 변호사의 드림콘서트가 어느덧 7회를 달성하였다.

드림콘서트는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자아를 발견할 기회를, 일반인들에게는 지식과 교양을 높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청소년들에게 롤모델을 제시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토크쇼는 진행자인 강지원 변호사가 매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4월 18일,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을 모시고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개최하였고, 병점 고등학교학생 310명과

일반인 302명(총612명)이 참석하여 좋은 출발을 하였다. 5월 16일에는 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를 게스트로 안화고등학교학생 673명, 일반인 127명(총800명), 6월 20일에는 세계요지여행전문가 한비야를 게스트로 삼괴고등학교학생 300명, 일반인 410명(총710명), 그리고 7월 18일에는 산악인 엄홍길을 게스트로 예당고등학교학생 405명, 일반인 195명(총600명)이 참석하였다.

이 후, 9월 19일에는 요리사 에드워드 권을 게스트로 송산고등학교에서(260명)개최하였고, 10월 17일엔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목을 게스트로 비봉고등학교에서(400명), 11월 21일엔 지휘자 금난새를 게스트로 봉담 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행사이지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도 보인다. 참가신청을 한 일반인의 수에 비해 실제 참가자의 수가 저조하였고, 원거리 학교 학생들이 참가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사의 구성이 단조로워 참가자들이 지루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앞으로는 '찾아가는' 드림콘서트를 운영하여 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진행하며, 단조로운 구성에 여러 가지 재미요소를 가미하여 매회 새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박현진 기자

'0.1그램의 희망'을 비봉고에 뿌리다



“하늘은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희망이라는 단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 불리는 서울대 이상목 교수가 10월 17일 화성시 비봉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드림콘서트에 이상목 교수가 초대되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상목 교수의 열정이 담긴 과학 이야기 그리고 불행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로 고난을 극복한 멋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상목 교수는 2006년 7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칼텍)과 공동으로 진행한 미국 야외지질조사 프로젝트를 학생들과 계획한다. 이 사업을 위해 테스밸리를 향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 그 사고로 인해 이 교수는 전신마비라는 장애를 안게 된다.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이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마우스 커서 이동과 클릭은 입을 사용 한다. 손을 전혀 움직일 수 없어 볼로써 휠체어를 조종한다.

그는 6개월 만에 강단에 복귀하였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대학교수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유의 긍정적인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였다.

이 교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강단에 올라갔다. 또 컴퓨터를 활용하였다. 음성인식이 달린 프로그램으로 타이핑을 했다. 학생들은 이 모든 과정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 교수는 사고가 난 후 3일 동안 의식 불명의 상태였다. 그과정에서 그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일어날 수 있어’ 생각을 하며, 죽음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한다. 눈물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여기까진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면서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사고가 난 후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이 교수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다. 그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학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도 했다. 그의 눈빛에서 학문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그는 첨단 IT기술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상목 교수 특유의 의지와 긍정적인 사고, 학문에 대한 열정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었다.

이 교수의 말씀씨도 빛을 발하였다. 농담 섞인 장난스런 말투를 가끔 사용하여, 토크 쇼 내내 학생들은 지루해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 교수에 대한 궁금 사항이나 과학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 교수는 질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대답하여 주었다. 과학자로서 대학 교수로서 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 교수는 그의 저서 ‘0.1그램의 희망’을 비봉고등학교 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한우리 기자

2010년 화성시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안내

2008년 12월에 개관한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은 **‘희망이란 그 이름! 당당한 그 이름! 청소년과 함께!’**

라는 슬로건 아래 최고의 수련활동 인프라를 구축하여 화성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한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년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화성시 청소년 및 인근지역 청소년들에게 많은 정보와 문화체험을 제공하였고, 학교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취미활동 등 즐거움을 한껏 안겨주었다.

2010년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 준비, 기획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자.

1년동안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기자단, 청소년자원봉사단, 청소년동아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참여의식 및 청소년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을 제공하는 청소년 자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 ▶ 청소년들의 안전의식고취를 위한 **청소년 안전문화체험**
- ▶ 청소년들에게 놀토 여가 선용의 기회를 주기위한 다양한 놀토 문화체험
- ▶ 유익한 가족여가시간 형성을 위해 **가족문화체험**
- ▶ 도·농 복합도시의 통합 및 소통과 추억을 제공하기 위한 **산들바람 농촌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체험프로그램 외의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다.

- ▶ 나를 위한 프로(pro)포즈(pose) 라는 타이틀 아래 청소년들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자기주도학습 방법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과
- ▶ 화성의 보물 (화성8경)을 탐구하고, 소중한 자연과 역사를 보존하며 자긍심과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화성보물찾기
- ▶ 제암리 3.1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청소년 독립캠프
-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해양체험을 통한 꿈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키 위한 청소년 해양캠프
- ▶ 진학과 사회진출에 필요한 정보 및 소양교육을 위한 중·고 3학년을 위한 캠프
- ▶ 꿈을 키우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여울 리더십학교
- ▶ 우리나라의 찬란한 문화유산의 보전의식과 자긍심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박물관 등이 기획, 예정되어 있다.

또한 영어카페 및 과학교실,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연중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하고 수준 있는 교육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은 경기도와 화성시의 공동지원으로 초등보육교육프로그램 ‘꿈나무 안심학교’를 2009년 신설, 운영하였다. 그간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이 학교 밖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간 마땅히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지 못했던 화성시 맞벌이 부모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10년에도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 꿈나무 안심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제 개관 1주년을 맞이한 화성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행복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관계자들의 격려를 바라며,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0년에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더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찾아갈 것을 기대한다.

강지현 기자

운영위원회와 기자단의 WORK SHOP



7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모임이 잦을 화성시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위원회와 기자단 학생들은 친목을 다지기위해 워크숍을 갔다. 워크숍으로 떠난 곳은 MT촌이라 불리는 대성리 계곡이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목소리는 경쟁력이다 소리를 키워라, 비전·실행력·커뮤니케이션을 갖춰라’ 등 숙소 도착 후 곧바로 학생들은 관계형성프로그램을 통한 리더십 교육을 받았다. 강사는 딱딱한 강의가 아닌 학생들과 함께 즐기며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였다.

교육이 끝난 후 기다리던 물놀이 시간이 오자 모두가 분주하게 옷을 갈아입고 물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져갔다. 물놀이를 마치고 학생들 앞에는 기자단 교육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의 모습, 조건 등 기자가 되기 위한 강의가 끝나자 주린 배를 안은 학생들은 바비큐



파티와 밤의 축제 캠프파이어를 즐겼다. 하루 일과를 모두 마쳤음에도 아쉬움이 남은 학생들은 버스 내에 있는 노래기기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뒤 밤이 새도록 게임을 하며 더욱 즐겁고 자연스럽게 친목을 다져갔다.

결국 새벽에서야 잠을 청한 학생들은 정신없고 부스스한 모습들로 아침식사를 마친 후 다시 유엔아이센터로 향했다. 유엔아이센터에 도착한 학생들은 각자의 감상문을 제출한 뒤 즐거웠던 어제를 마음에 품고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다.

학생들에게 이번 워크숍은 어색했던 거리감을 없애고 서로에 대해 많을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고효정 기자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소개

청소년 수련관 교육시설



• 과학교실

- 위치 : 지상 3층
- 마치 학교의 과학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곳은 학교 교과 과정에 맞춘 실험과 실습을 미리 해볼 수 있고, 보다 재미있게 과학에 다가설 수 있는 장소



• 영어카페

- 위치 : 지상 3층
- Talk Talk English라는 슬로건 아래 동화속 같은 교실에서 영어회화 뿐만 아니라 영어일기를 통해서 어렵게만 느껴지는 영어를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즐겁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운동강의실

- 위치 : 지상 2층
- 의자와 책상이 아닌 바닥에서 편안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다도와 꽃꽂이 등의 취미활동과 요가나 에어로빅 등의 프로그램도 가능



• 꿈나무안심학교

- 위치 : 지상 3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맞벌이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화성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 보호, 복지 및 다양한 문화활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의 역할을 분담하여,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 정보화교육장

- 위치 : 지상 2층
- 21대의 최신형 컴퓨터를 갖추고, 초고속 인터넷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여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강좌 진행



• 세미나실

- 위치 : 지상 2층
- 작은 무대를 갖추고 있어 아이들의 학습 발표회나 다양한 교양강좌 및 세미나를 열 수 있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화감상이나 작은 공연도 관람 가능



• 노래연습실

- 위치 : 지상 3층
-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으로 학교생활에 지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줌

스포츠 시설



• 수영장

- 위치 : 지하 3층
- 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인 3급 수영장 50m×8레인, 종목별 집계시스템 및 동시 표출 가능한 대형전광판 설치, 최첨단 시스템인 소금물전기분해방식으로 소독약 냄새가 없으며, 남자 락카 336개, 여자락카 568개 보유, 세계적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형 유리면(선로가든) 설치
- 유아용풀장 (규격 7m×9m, 유아 및 저학년 어린이들의 이용공간)



• 아이스링크

- 위치 : 지하 3층
- 피겨여왕 김연아선수의 국내전용훈련장으로 더 잘 알려진 아이스링크는 61M×30M의 국제 규격을 갖추고 있는 시설로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이 가능하고, 역삼투압 방식의 수질관리 및 결빙으로 최상의 빙질을 유지하며, 국내최초 유해성분이 없는 프레온 134A 냉매 및 대용량 제습시스템 가동으로 결로현상을 예방하는 등 최고의 시설을 갖춘 .



• 실내체육관

- 위치 : 지하 3층
- 여러가지 구기종목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배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족구, 검도, 태권도, 음악줄넘기 등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음



• 헬스장

- 위치 : 지하 2층
- 40여종의 유산소 기구와 30여종의 웨이트 트레이닝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체육학을 전공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적인 트레이너들에게 운동지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실내골프연습장

- 위치 : 지하 1층
- 6타석 자동 Tee-up system으로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어 겨울 및 여름에도 쾌적하게 프를 즐길 수 있고 퍼팅장이 준비되어 있어 골프 실력 향상에 도움



• 에어로빅장

- 위치 : 지하 2층
- 최상의 오디오시설로 깨끗한 음향과 함께 높은 운동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에어로빅 외에 발리댄스, 제즈댄스, 유아발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



• 실외다목적경기장

- 위치 : 지상 1층
- 배드민턴, 족구, 야외농구, 풋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무릎 및 관절에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바닥재를 사용했으며 화성시민이면 언제나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동아리 탐방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연극 동아리 “카르페디엠” Carpe Diem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육에 열광하고 있는 지금, 자기의 적성을 찾지 못하고 남이 하는 무조건 공부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각자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적성을 찾은 친구들이 모여 만든 연극 동아리 “카르페디엠”, 연극 동아리의 일원인 조은누리 학생과 인터뷰를 가져보았다.

Q : 카르페디엠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그 동아리의 역할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카르페디엠은 동아리 내에서 무슨 일을 하죠?

A : 카르페디엠은 단순히 생각하면 연극 동아리예요. 그러나 친구간의 우정을 쌓을 수도 있고 자신의 꿈,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동아리예요.

Q : 각자의 꿈을 가진 동아리라고 하셨는데, 카르페디엠의 구성원 수는 몇 명인가요?

A : 처음 시작은 4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더 받을 수 도 있어요!

Q : 카르페디엠이 개설된 계기가 있나요?

A : 친구들끼리 모여서 뭔가 하고 싶어 했는데, 마침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 모집을 하기에 동아리로 들어갔어요.

Q : ‘카르페디엠’에 특별한 뜻이 있나요?

A : 카르페디엠은 라틴어로 “현재를 즐겨라, 충실 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과거에는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했지만 동아리를 개설 후에는 현재를 즐기고, 충실하자라는 뜻으로 동아리의 이름을 카르페디엠으로 정했어요.

Q : 카르페디엠의 현재 활동현황이 있나요?

A : 우리 카르페디엠은 개설 된지 4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12월 27일에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 있을 동아리 발표회에서 짧은 연극을 하게 되었어요. 첫 무대라 많이들 긴장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Q : 학생들이다 보니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언제 어디서 연습을 하죠?

A : 보통 자신의 배역의 대본을 받아 집에서 연습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모여 학교나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온돌강의실에서 연습을 해요.

Q : 동아리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이죠?

A : 아직 우리 학교 학생으로 밖에 구성 안 된 동아리지만 연극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과 만나서 더 발전하고 싶어요. 또 아직 짧은 시간의 연극 밖에 못하지만 길고 또 동아리의 특색이 잘 나타난 연극을 하고 싶어요.

Q : 어떤 장르의 연극을 하고 싶으신가요?

A : 아직 어려서 잘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에 대해 표현하고 싶어요.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 연극에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부족할 수 있으나 천천히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잘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적성과 특성을 알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면 취미나 흥미 있는 것을 만들어서 동아리나 여러 가지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어떤가? 잠시나마 자신에 대해 알아보고 또 발견해가는 시간이 있으면 나 자신을 더 자세히 알아 갈수 있을 듯하다.

이재윤 기자

요즘엔 공부하는 중년여성이 대세

전업주부였던 그녀
“꿈 찾아 날고 싶었죠”



요즘 유엔아이센터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중년여성들이 눈에 띈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사를 할 시간에 그녀들은 왜 유엔아이센터에 있는 것일까?

“어느 날 문득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는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 지더라고요. 젊었을 때 못 다 이룬 공부를 하고 싶었죠” 전업주부였던 송 씨의 인터뷰 답변이다.

송 씨는 학창시절 우등생이었으나, 집안형편상 대학을 가지 못했다. 늘 가슴 속에 품었던 공부에 대한 열망이 그녀를 흔들었다. 그녀는 강의실에 앉아 강의를 들을 때, 집에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 또 다시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침대 위에 누워서 책을 읽다 잠이 드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한다.

송씨에게는 수험생인 자녀가 두 명 있다. 그녀는

“인터넷강의를 듣고 있으면, 딸이 와서 ‘우리 집에선 엄마가 수험생’이라며 놀리기도 해요.”라고 말했다. 송씨는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극을 받아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라고 말하였다.

공부를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에서 송씨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나이만큼 반복을 해야 한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공부를 하는 중년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공부의 참 즐거움을 알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우리 기자

그들만의 특별한 한글

지난 7월 19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용주사에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말과 문화를 가르치는 외국인 한국어 학교가 설립한지 3년을 맞이하여 행사를 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한국어수업을 받은 외국인들에게 상장과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시상식이 끝난 고 나서 우리나라의 악기인 해금과 장구 연주, 그리고 한국인들조차 잘 모르는 진도 북춤을 선보였다. 외국인들이어서 우리나라의 악기와 가락을 모를 텐데 연주 내내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였다. 점심시간에는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중국, 캄보디아, 한국 등의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각국 외국인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다. 점심시간 후 외국인 학교 학생들이 한국노래를 어설픈 발음이지만 최선을 다해 불렀고, 한국노래를 모르는 학생들은 자신의 나라의 노래를 불렀다.

현재 창립한지 3년 이 된 외국인 한국어 학교 학생은 80여명정도 이며, 결혼이민자 반과 근로노동자 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였다. 결혼 이민자 반은 한국어 이외 에도 한국음식, 예절, 아이 키우는 방법 등 우리 주부들이 알아야할 소소한 것 까지 가르치고 있으며, 근로 노동자 반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단어들 위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결혼 이민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학생들이 많았고 근로자는 스리랑카와 태국 학생이 많다고 하였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교는 무료로 운영되며, 일요일에 수업을 진행하므로 외국인들이 회사나 가정에 비교적 구애를 받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날 행사에 모인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발음이 어렵고 읽는 것과 쓰는 것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다는 점(예),예쁘다, 어여쁘다, 아름답다 등)을 들었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들은 이제 우리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의 일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계속 늘어만 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입견보다는 주의에 있는 이런 한국어 학교를 소개하는 일 이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작은 실천들이 일어나는 행복한 개교 기념행사에 참여 할 수 있어 좋았다.

신지영 기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 - ‘아이두’



어른들은 모르게 10대들의 생각을 듣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싶을 때

사이버 공간 멘토링- ‘또띠’



혹시나 살다가 인생의 갈림길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멘토가 필요할 때 라면?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사이트



사이언스올 <http://www.scienceall.com>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의 과학을 쉽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놓은 학습 사이트

기자단칼럼



우리들의 말 말 말

경기도 화성시에는 ‘용주사’ 라는 절이 있다. 또 그 주변에는, 효를 자랑하는 ‘정조’ 의묘(건릉와 정조의 아버지인 ‘정조’ 의묘(용릉)가 있다. 용건릉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문화재이자, 관광명소이다.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겨준 것이며, 나중에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재산인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문화재를 주변에 고층아파트를 설립하려고 한다.

더욱이 훼손된 문화재가 많아 걱정을 하면서도 오로지 발전만을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도 불구하고 건설사 쪽에서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용릉과 건릉 주변에는 반대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고, 용주사에서는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외국인들도 한국인들 못지않게 우리의 문화재를 아끼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도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하는 자세를 외국인들한테 배워야한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한다면 분명히 우리도 문화재를 잘 보존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문화재를 지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도 남겨줄 수 있을까?

김지훈 기자

이건희 기자

아이돌 가수와 팬 사이, 팬덤 문화

‘팬덤’이란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현상이다.(출처: 두산백과사전) 우리나라의 팬덤 문화는 조용필의 ‘오빠부대’, ‘서태지와 아이들’, ‘H.O.T’를 시작으로 팬클럽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뒤로 지금에서도 동방신기의 ‘카시오페아’, 빅뱅의 ‘VIP’, FT아일랜드의 ‘프리마돈나’, 2PM의 ‘HOTTEST’, 소녀시대의 ‘소원’, 원더걸스의 ‘원더풀’ 등 이외에 여러 팬덤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팬덤 문화는 비슷한 가수나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 될 수 있다. 팬 카페 같은 곳에서 생각들을 공유하며

‘팬픽’ 또는 ‘동영상’과 같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자료를 생산해내고 발전시킨다. 다른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과 동맹도 맺으며 서로를 응원해 주는 등 긍정적인 면도 많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부정적인 면이 왜 없겠는가.

지나친 팬덤 문화는 좋지 못한 사회문제로도 발전되고 있다. 마치 사이버교주와 신자들 같다는 비판도 여김없이 나오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가 옳지 못한 행동으로 가십거리가 되면 스타를 감싸주면서 스타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인신공격을 마다하지 않는다. 또 자신의 스타를 더 내보이기 위해서 라이벌 상에 있는 스타를 헐뜯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또 팬클럽끼리 시비가 붙어서 싸우

는 일도 다반사고 어느 프로그램에 단체로 찾아가 그 스타가 말하는데 침묵 또는 욕을 내뱉는 등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러한 지나친 팬덤 문화는 서로에게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좋았던 친구사이마저 위태롭게 만들기도 한다.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맘껏 아길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팬덤 문화가 언제쯤이나 만들어질까 밝은 팬덤 문화를 기대해 본다.

강지은 기자

정부에게 묻는다. 한국 교육, 이대로 가도 되는가?

우리나라는 교육을 크게 강요한다. 특히 지금에 와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 교육은 정말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교육받는 학생들은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부정적인가? 간단하다. 마치 통일을 남북대신 학생들에게 시키자는 듯 모든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개성을 무시한 채 같은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현재 우리 교육의 세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연히 나라의 모든 학생들을 보살펴 줘야 하는 국가는 그러한 의무를 잊기라도 한 듯이 학생들을 경쟁의 늪 속으로만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뻘어나가야 할 바른 교육은

무엇인가? 물론 그것은 사교육비를 왕창 소모해 학생들로 하여금 과외를 받게 하는 것도, 지금 정권의 교육방침처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슬로건 아래 무려 초등학생들까지 입시자육으로 끌어내는 것도 아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을 살려 교육하는 것이며 또한 경쟁의 늪 속에 빠진 학생 모두를 화합의 배로 이끄는 것이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개발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은 현실 차원의 문제다. 현재의 교육상황, 인적 자원이 충분치 않은 것도 문제이거나 더 큰 문제는 공부를 꼭 잘해야만 성공한다는 사회의식,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 사회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단위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것을 실행할만한 주체는 오로지 정부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어떠한가? 올바른 교육을 아주 반듯하게 역행하는 중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할 문제에,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가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가 인적자원이 넘쳐난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게 될 것이다.

이건희 기자

Life Work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09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청소년직업훈련반 1기 “Life Work”가 진행되고 있다. 화성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한식조리, 헤어디자인 등 세반으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이 자신을 꿈울 키울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Life Work”는 매주 화, 목 19:00부터 22:00까지 운영되며 각반 15명씩 현재 31명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다.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다양한 분야의 체험거리를 제공할 것 이라고 한다. 또한 2010년 2월중에 2기 “Life Work” 모집 예정이니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신동현 기자

BOOK STORY

바람의 딸 한비야, 사랑을 말하다.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을 돌고, 월드비전에서 긴급구호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비야, 그녀의 일상을 담은 자서전에세이 ‘그건, 사랑이었네’이다.

저자 한비야는 어렸을 적부터 간직해온 세계일주의 꿈을 이루기 위해 회사를 떠난다.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을 실현하며,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수단, 이라크 등 전쟁과 기아로 힘든 삶을 사는 곳을 방문한다. 그녀는 후에 월드비전이라는 긴급구호단체에 들어가 식량 배분 담당 팀장으로 일한다. 굶어가는 아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전쟁으로 고통을 받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의 관심밖에 있는 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러나 우리의 손길이 간절한 나라들을 도와주며 한비야는 그들의 삶을 목소리 내어 전한다. 그들의 눈물을 대신 닦아주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 그들의 삶을 안아주고 위로해준다. 나이를 먹어도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진 한비야, 이 책은 그녀의 일상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준다. 한비야의 힘의 원천을 어디일까? 책을 통해서 그녀는 힘의 원천이 “사랑”이었음을 고백한다. 신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한비야는 지금도 자기가 커서 무엇이 될 지 궁금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또 새로운 길을 간다.

그녀는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 긴급 구호팀장을 그만 두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터프츠 대학에서 인도적 지원 석사과정을 공부한다고 한다. 그녀는 이론을 공부하고 돌아와 실천에 이론을 접목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50살,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 곧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저자는 인생을 축구에 비유하였다.

약 우리가 90살까지 산다고 가정해보면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전에 골 좀 먹었다고 시합이 진 것이 아니다. 전반전 남은 시간이 있고, 후반전 45분이 남아있다. 패널트 킥이 있을 수도 있고, 페어플레이전이 있을 수 도 있다. 늦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녀는 후반전 5분을 달리고 있다고 한다. 늦은 것만은 아니다. 늘 꿈꾸며 달리는 한비야,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진 한비야, 아름다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한비야.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다시 문을 두드리는 한비야. 저자는 책을 통해 모두가 사랑이란 감정아래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한우리 기자

MOVIE & CONCERT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트롬본의 향연



교수와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USW 트롬본 콰이어는 관중들이 트롬본을 통해 폭 넓은 음악의 세계를 접하는 동시에, 여러 사람이 연주하며 느끼는 실내악의 진정한 묘미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창단되었다.

조금은 서툰 한국말이지만 재미있는 우나이 우레초 교수의 해설도 함께했다. 클래식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해설시간은 청소년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크게 1부<CLASSIC>과 2부<POP&JAZZ>로 나뉜 이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통 클래식과 제임스 본드의 메인 타이틀곡, 비틀즈의 노래 등 익숙한 음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관객들 모두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연 중간에 트롬본을 볼 줄 아는 관객에게 깜짝 선물을 준다면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공연이 막바지에 이르자 헤어지기를 아쉬워한 관객들은 ‘한번 더’를 외쳤고 결국 3곡의 앵콜 공연을 끝으로 연주회는 끝이 났다.

쉽게 접해보기 힘든 트롬본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던 공연으로 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관객들에게 유익한 공연이었다.

강지현 기자

8월 16일 오후 5시. 유엔아이센터 화성 아트홀은 우나이 교수의 트롬본 콰이어를 보기 위해 물려든 관객들로 붐볐다.

트롬본 콰이어란 이름은 트롬본의 연주소리가 남성 합창단의 소리와 흡사 하다는데서 유래되었다. 이 매력적인 중저음의 소리는 고전음악에서 재즈음악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소화 할 수 있다.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인 우나이 우레초

하늘을 나는 꿈 국가대표



올림픽을 위해 급조되었던 국가대표팀은 해체 위기에 처한다.

일탈결에 국가대표가 되었지만 연습을 거듭하며 어느덧 금메달이 목표가 되어버린 선수들과 그들의 모습에 감동한 코치는 스스로 생활비와 훈련비를 충당하여 올림픽에 출전한다.

대표 선수들이 처음으로 출전한 나가노 동계 올림픽 장면은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레드 윈 카메라와 껌갯을 사용하여 촬영한 장면인 만큼 감탄이 절로 나왔다. 스키점프를 하며 아래를 바라보는 장면은 여름의 더운 열기를 한 번에 씻겨줄 만큼 시원하고 후련하다.

그들은 나가노 올림픽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경기를 보여준다. 하지만 강철구 선수의 부상으로 결국, 대표 팀은 꼴찌로 한국에 돌아온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고 만족해한다. 비록 쇼트트랙 선수들에 가려 스포트라이트도, 어떠한 인터뷰도 받지 못한 채 뒤에 물러서있지만, 실화여서 더욱 감동적인 영화 국가대표.

웃음, 감동 그리고 후반부를 차지하는 짜릿한 스키점프의 매력까지.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은 무한대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아름다운 비행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 억지 호응도 눈물도 아닌 그냥 따뜻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영화다. 또한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영화였다.

강지현 기자

2008 화성시 청소년들이 기획한
꿈을 향한 그 첫번째 이야기

...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은 2009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청소년참여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꿈을 향한 그 첫번째 이야기] '꿈·틀'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작품과 체험, 공연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자치회'의 운영위원회, 기자단, 동아리, 자원봉사단과 꿈나무안심학교,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스포츠운영팀이 만들어 내는 역동과 조화로움 속에서 시간의 향기와 시간의 소리, 시간의 맛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9. 12. 26(토) ~ 27(일) 10:00 ~ 18:00 / 2일
장소 : 유엔아이센터(1층 전시실, 2층 세미나실)
참가대상 : 꿈나무안심학교 학생, 청소년자치회, 화성시 관내 청소년 및 가족
주최 :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참여자치회
주관 :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청소년수련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박승희 선수와 함께하는
경기도 쇼트트랙 대표선수단 시범경기

▶ 일시 : 2009년 12월 26일(토) 14시
▶ 장소 : 유엔아이센터 빙상장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스포츠 프로그램

수영강습프로그램 ※기준반 빈 자리에 한하여 모집합니다.

대상	시간	반명 / 강습요일	프로그램	가격	인원	비고
성인 수영 교실	06:00	성인A (월수금)	성인B (화목토)	60,000원	25명	월수금→ 화목토 (자유수영)
	07:00	성인C (월수금)	성인D (화목토)	60,000원 55,000원	25명	
여성 수영 교실	09:00	여성A(월수금)	기초,초급, 중급, 상급, 마스터	60,000원 55,000원	25명	화목토→ 월수금 (자유수영)
		여성B(화목)		60,000원 55,000원	25명	
	10:00	여성C(월수금)		60,000원 55,000원	25명	
		여성D(화목)		60,000원 55,000원	25명	
	11:00	여성E(월수금)		60,000원 55,000원	25명	
		여성F(화목)		60,000원 55,000원	25명	
아쿠아로빅	12:00	자모수영(화, 목)	자모수영B		15명	12개월~만5세
		아쿠아A(월수금)	아쿠아로빅(실버)	30,000원 27,500원	각반	실버 만65세 이상 일반 만65세 미만 월수금→ 화목토 (자유수영)
	13:00	아쿠아B(화목)	아쿠아로빅(일반)	30,000원 27,500원	100명	화목토→ 월수금 (자유수영)
성인 어르신 장애인 수영 교실	14:00	실버A (월수금)	실버B (화목토)	30,000원 27,500원	15명	만65세 이상 월수금→ 화목토(자유수영) 화목토→ 월수금(자유수영)
		장애인A (월수금)	장애인B (화목토)	17,500원 27,500원	15명	담당선생님과 상담 후 등록
		자모수영(월수금)		자모수영A	60,000원	8명 12개월~만5세
		임산부수영(화목)		임산부수영	55,000원	15명 3~9개월
	15:00	실버C (월수금)	실버D (화목)	30,000원 27,500원	15명	만65세 이상 월수금→ 화목토(자유수영) 화목토→ 월수금(자유수영)
		장애인C (월수금)	장애인D (화목)	17,500원 15,000원	15명	담당선생님과 상담 후 등록
유아 어린이 수영 교실	15:00	유아A (월수금)	유아B (화목)	25,000원 20,000원	15명	유아수영 : 만6세~7세 (04년 12월생 까지)
		유아C (월수금)	유아D (화목)	25,000원 20,000원	15명	
	16:00	어린이A (월수금)	어린이B (화목)	35,000원 30,000원	15명	
		유아E (월수금)	유아F (화목)	25,000원 20,000원	15명	
	17:00	어린이C (월수금)	어린이D (화목)	35,000원 30,000원	15명	
		어린이E (월수금)	어린이F (화목)	35,000원 30,000원	15명	
성인 수영 교실	18:00	어린이(월~금)		75,000원	15명	테스트 후 등록
		어린이선수반				
	19:00	성인E(월화목금)	기초, 초급, 중급, 상급, 마스터	67,000원	15명	수, 토 (자유수영)
	20:00	성인F(월화목금)		67,000원	15명	
	21:00	성인G(월화목금)		67,000원	15명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강좌명	정원	강습일	강습시간	대상	수강료	비고
유아발레	15명	화, 목	15:00~15:50	유아	20,000원	
유아발레A	15명	화, 목	16:00~16:50	유아	20,000원	
유아발레B	15명	화, 목	17:00~17:50	유아	20,000원	
유아발레(마스터)	15명	월, 수	17:00~17:50	유아	60,000원	
유아발레	15명	화, 목	18:00~18:50	유아	20,000원	
어린이발레	20명	월, 수	18:00~18:50	어린이	30,000원	
어린이발레	20명	금	18:00~18:50	어린이	15,000원	

온돌강의실프로그램 ※기준반 빈 자리에 한하여 모집합니다.

강좌명	정원	강습일	강습시간	대상	수강료	비고
필라테스A	20명	월, 수, 금	07:00~07:50	성인	40,000원	
파워요가A	20명	월, 수, 금	08:00~08:50	성인	30,000원	
상쾌한아침요가	20명	월, 수, 금	09:00~09:50	성인	30,000원	
성장요가A	20명	월, 수, 금	16:00~16:50	어린이, 청소년	30,000원	
S라인요가	20명	월, 수, 금	19:00~19:50	성인	30,000원	
필라테스B	20명	월, 수, 금	20:00~20:50	성인	40,000원	
다이어트요가A	20명	화, 목	20:00~20:50	성인	25,000원	

실내체육관프로그램 ※기준반 빈 자리에 한하여 모집합니다.

성인 프로그램

강좌명	정원	강습일	강습시간	대상	수강료	비고
탁구A	20명	월, 수, 금	09:00~10:00	성인(남,여)	30,000원	
탁구B	20명	화, 목	09:00~10:30	성인(남,여)	30,000원	
배드민턴A	20명	월, 수, 금	11:00~12:00	성인(남,여)	30,000원	
배드민턴B	20명	화, 목	10:30~12:00	성인(남,여)	30,000원	
배드민턴C	20명	월~금	18:00~19:00	성인(남,여)	60,000원	
탁구C	20명	월~금	19:00~20:00	성인(남,여)	60,000원	

어린이 / 유아 프로그램

강좌명	정원	강습일	강습시간	대상	수강료	비고
실내축구A	20명	월, 수, 금	15:00~15:50	미취학아동	30,000원	(5세~6세)
배드민턴	20명	화, 목	16:00~16:50	초등학교생(남,여)	25,000원	초3~초6
농구	20명	화, 목	17:00~17:50	초등학교생(남,여)	25,000원	
탁구	20명	토	14:00~15:00	초등학교생(남,여)	20,000원	
주말체육(농구)	20명	토	15:00~16:00	초등학교생(남)	20,000원	
주말체육(농구)	20명	토	16:00~17:00	초등학교생(여)	20,000원	

체력단련 건강 헬스교실(수시접수)

구 분	이 용 대 상	이 용 시 간	이 용 요 금		비고
평 일	성인/청소년	06:00~22:00	성 인	청 소 년	※ 신규회원님 꼭 상담 후 운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 요 일	성인/청소년	06:00~20:00	40,000원	30,000원	
일 요 일	성인/청소년	10:00~17:00			
일일입장요금 성인 : 3,000원 / 청소년 : 2,500원 월~금-06:00~22:00/토요일-06:00~21:00/일요일-10:00~17:00 준비물 - 실내용동화, 운동복, 빗수건					

골프 강습 프로그램

구분	이용 대상	이용 시간	프로그램	가 격	정원	비고
평 일	성인 남, 여	06:00~22:00	성인골프	100,000원	70명	
토 요 일		09:00~18:00				
공지 사항	· 준비물 : 골프화(운동화), 장갑 · 골프 연습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이용료에는 레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신규 강습시간표는 매월 홈페이지(<http://www.hcf.or.kr>)와 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지됩니다.

주말프로그램

대상	시간	반명/강습요일	프로그램	가격	인원	비고
주말 프로그램	11:00	주말 자모 수영	주말자모수영	20,000원	15명	12개월~만5세
	15:00	스킨다이버(15시~17시)	스킨다이버	청소년 : 35,000원 성인 : 45,000원	15명	오리발스노를마스크개인준비 (5m 물 병행 수업)

자유수영

구분	이용대상	이용시간	이용요금			비고
평일	성인, 청소년	1부 : 06:00~13:00 2부 : 18:00~22:00	성인	청소년	어린이	어린이 : 영, 유아 - 초등학교 · 청소년 : 중, 고등학교 · 성인 : 만19세이상 · 일요일 및 공휴일 : 회원카드 소지자 유료 · 미취학아동은 반드시 보호자(성인)동반 · 입장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킥판, 헬파, 물부이, · 오리발 사용금지 · 부가세 10%포함
토요일	어린이	12:00~20:00	3,000원	2,500원	2,000원	
	성인	06:00~20:00				
일요일 공휴일	성인/청소년 어린이	10:00~17:00				

▶ 입상부 자유수영 이용시간 : 월~금 14:00~15:00

빙상장프로그램

대상	시간	종목	스 피 드		피 겨	
유아 어린이	15:00~15:45	월, 수, 금			월, 수, 금	
		화, 목			상급반	
	16:00~16:45	월, 수, 금	마스타반		월, 수, 금	중급반 / 신규(기초반)
		화, 목			화, 목	
	17:00~17:45	월, 수, 금	중급반		월, 수, 금	고급반
		화, 목			화, 목	
	19:00~19:45				월, 수	중급반
	비고	강습이 없는 요일에는 자유스케이팅 가능(토,일 제외) - 월,수,금회원 : 화,목 자유스케이팅 - 화,목 회원 : 월,수,금 자유스케이팅				

빙상장 일일 입장요금

대상	성인	청소년	어린이	비고
일일입장	3,000원	2,500원	2,000원	- 단체 20인이상 10% 할인 - 물품보관료 200원 별도
스케이팅 대여료	3,000원	3,000원	3,000원	- 3시간 기준 -단체 20인 이상 10%할인

★신규회원 준비물 : 몸에 붙는 트레이닝복, 장갑 ※강습회원 전용 헬멧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월 휴장일 : 첫째주, 수요일, 셋째주 목요일 ★강습문의 : 267-8726, 267-8728 ★강습인원이 8명 미만이면 합반, 폐강 될 수 있습니다.
★대어스케이팅 SIZE는190mm~230mm까지 10mm단위 입니다. ★이용시간 10:00~17:45(평일 · 주말)

에어로빅장프로그램 ※기준반 빈 자리에 한하여 모집합니다.

성인 프로그램

강좌명	정원	강습일	강습시간	대상	수강료	비고
에어로빅	30명	월~금	09:00~09:50	성인	40,000원	
방송댄스A	30명	월, 수, 금	10:00~10:50	성인	40,000원	
벨리댄스A	25명	화, 목	10:00~10:50	성인	30,000원	
스포츠댄스A	25명	월, 수, 금	11:00~11:50	성인(남,여)	40,000원	자이브
스포츠댄스B	25명	월, 수, 금	12:00~12:50	성인(남,여)	40,000원	룸바
피규어댄스A	25명	화, 목	11:00~11:50	성인	30,000원	
벨리댄스B	25명	월, 수, 금	19:00~19:50	성인	40,000원	
방송다이어트댄스	25명	화, 목	20:00~20:50	성인	40,000원	
피규어댄스B	25명	월, 수, 금	20:00~20:50	성인	40,000원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스포츠 프로그램 회원모집 안내

수영/빙상/헬스/골프/에어로빅/요가 실내체육관

● 등록일시 (신규접수시간 : 09~20시까지)

재등록 : 매월 3째주 월~금

변경등록 : 매월 3째주 목, 금

신규등록 : 매월 4째주 월~수(화성시민우선)

신규등록 : 매월 4째주 목~금(기타지역)

※정원의 70% 미만일 경우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환불 (환불신청서 작성일 기준)정부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적용

※환불 기산점은 개강 개시일(매월1일)로 함

· 개강전 : 수강료의 10%공제후 환불

· 개강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불 (이용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함, 수강일의 15일이 넘을시 환불 불가)

· 홈페이지(<http://www.hcf.or.kr>)를 통해 공지 됩니다.

· 할인대상 고객은 현장접수 및 수납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질관리와 빙상장 빙질관리를 위하여 매월 첫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수영장, 빙상장 휴관입니다.

● 기간 연기

· 1개월 단위 1회 가능, 그 이상은 연기, 환불 불가

하용사유 :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구비서류 : 증빙자료, 연기 신청서)

수강일의 15일이 넘을시 연기 불가

● 강습반 변경

· 개강후 1주일 이내 가능하며 동일 프로그램에 한하여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1회)한함. 강좌 변경시 명의 변경 불가함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본인, 가족포함 50%감면(증빙서류제출 : 주민자치센터)

·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 본인, 가족포함 50%감면(증빙서류제출 : 주민자치센터)

· 장애인 : 본인 50%감면(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50%감면(유공자증 제시)

· 만65세 이상 어르신 : 경로우대 카드 소지자 50%감면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50%감면(증빙서류제출 : 주민자치센터)

● 준수사항

· 입장시 회원증을 꼭 제시해야 합니다.

· 일요일, 공휴일은(자유수영일제외) 유료입장입니다.

화성시청소년수련관 T.031-267-8751~2

<http://www.hcf.or.kr>

[문의 : 031-267-8751-2] 강습 프로그램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